

짐 윌리스의 “회심” 출판기념 강연회



- 강연 _ 배덕만 교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김선욱 교수(송실대학교)
- 일시 _ 2008년 12월 9일(화) 오후 7시
- 장소 _ IVF 중앙회관 지하 “좋은땅”

Ivp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기심
Christian
Ethics
Movement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목차/ 순서

“회심”
출판기념 강연회

● 찬양과 교제

- 사 회 : 양 희 송 기획자(청어람아카데미)

● 강연 1 - 짐 윌리스 : 복음주의 사회참여의 새로운 모델 3

참고자료 _ 회심 해설서 18

배 덕 만 교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 강연 2 - 평화와 정의, 그리고 회심과 하나님의 정치 22

김 선 옥 교수(숭실대 철학과)

● 질의응답

강연 1

“회심”
출판기념 강연회

배덕만 교수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짐 윌리스: 복음주의 사회참여의 새로운 모델¹⁾

I. 글을 시작하며

한국의 보수 기독교가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사학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목회자들이 삭발투쟁을 전개했고, 전국적으로 기도회 및 반대서명 운동이 거세게 진행되었다. 결국 그들의 힘에 국회가 움직였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표를 의식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주한미군철수 반대 및 이라크 파병 지지를 외치는 합성이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다. 지난 대선 때에는 장로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전국 교회의 담합이 이루어져, 교회의 강단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당대회장으로 변했고, 치밀하고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 세 번째 장로대통령이 탄생했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사탄의 공작,” “좌파의 음모,” 혹은 “배후세력” 운운하며,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의 독설이 저명한 보수적 목회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 즉 복음주의 교회는 한국 정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큰 손” 중 하나가 되었으며, 한국의 정치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도적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일종의 시민종교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²⁾

물론 교회의 정치참여가 죄는 아니다.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1) 본 원고는 제1회 기독교장연구자 컨퍼런스(2008년 8월)와 복음과상황(2008년 10월호)에 기고했던 것입니다.

2) 한국 보수 기독교의 정치화 현상에 대해서는 김지방, <정치교회> (서울: 교양인, 2007)와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를 참조하십시오.

밝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요 의무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보수 기독교의 정치세력화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의 방향과 내용 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무분별한 정치참여는 종교 혹은 교회의 본질 자체를 왜곡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담당해야 할 예언자적 기능 대신, 현 체제를 맹목적으로 보수하려는 타락한 제사장적 역할로 추락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한 진지하고 정직한 독서를 통해, 세속의 오염된 사상과 문화를 비판하고 개혁하기 보다, 타락한 속세의 정신과 세력이 교회의 성역을 장악하고 파괴하는 괴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급속도로 팽창되는 교회의 정치적 기득권에 비해, 교회가 한국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하며, 오히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과 도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 신앙의 핵심을 보수하면서, 동시에 더욱 복잡해지고 난해해진 사회적 문제들에 보다 탄력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때에,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자기정체성의 혼란과 사역의 방향감 상실, 그리고 세상과의 적절한 거리유지에 실패함으로써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미국의 복음주의 좌파를 대표하는 <소저너스> 지의 편집자인 짐 윌리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한국교회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현상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짐 윌리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복음과 상황> 만이 짐 윌리스에게 주목하면서, 그의 컬럼들을 꾸준히 번역/소개해 왔고, <현대기독교아카데미>에서 짐 윌리스에 대한 강좌를 정기적으로 열어 왔을 뿐, 정작 신학교나 교회에서는 철저히 간과되어 왔다. 학계에서는 윌리스에 대한 단 한편의 연구논문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미 대선에서 짐 윌리스의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고, 그의 책 <하나님의 정치>(God's Politics)가 미국 서점가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드디어 한국의 출판계에서도 윌리스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들이 연속적으로 번역/출판되고 있는 현상이 이런 현실을 대변해 준다.³⁾ 짐 윌리스는 인격적 신앙과 정치적 책임을 통합함으로써, 종교적 우파의 왜곡된 신앙과 세속적 좌파의 편향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런 면에서 짐 윌리스의 신학과 활동을 한국에 소개하고 연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며, 신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짐 윌리스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탐구하려는 최초의 학문적 시도이다. 이제 짐 윌리스의 생애, 그의 신학적/신앙적 정체성, 그리고 그의 중심 사상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가치를 검토하고, 그의 사상과 실천이 현재 한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3) 짐 윌리스의 베스트셀러 God's Politics가 청림출판사에 의해 <하나님의 정치>란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짐 윌리스의 초기 대표작인 The Call to Conversion이 IVP에 의해 <회심>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며, 짐 윌리스의 최신작 The Great Awakening에 대한 판권을 살림출판사가 확보하고, 현재 출판을 준비 중이다. 가히, "윌리스 신드롬"이라고 할만 하다.

II. 짐 월리스는 누구인가?

1) 짐 월리스의 생애와 사역⁴⁾

짐 월리스는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 빈곤과 전쟁 같은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예언자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표적 지성 중 한 명이다. 1948년, 미시간 주의 한 플리머스 형제단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경건하고 보수적인 기독교 청년으로 평범하게 성장했다. 그러던 그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당대의 가장 첨예한 사회적 쟁점인 흑인들의 암담한 현실과, 이에 대한 복음주의 기독교의 냉대와 무관심을 체험하며, “급진적 기독교”인으로 변모하였다. 특별히 1968년, 마틴 루터 킹 2세와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이란 비보를 접하면서 정의에 대한 냉철한 의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며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극적인 신앙적 회심을 경험했다.

성서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하던 그는 1970년, 시카고에 소재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신학교에서 그는 자신과 비전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 인민연합”(People’s Christian Coalition)이란 공동체를 설립했고, 1971년에는 <포스트-아메리칸>(Post-American) 지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적 사회참여에 뛰어들었다. 얼마 후 이 공동체가 해체되자, 잡지 발행도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1975년에 월리스를 중심으로 워싱턴 D.C.에서 ‘소저너스 공동체’(Sojourners Fellowship)가 재건되고, 잡지도 <소저너스>란 이름으로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갱신으로의 부르심”(Call to Renewal)이란 에큐메니컬 단체를 설립하여, 이 분야의 여론 형성과 대중교육, 그리고 구체적 운동을 주도해 왔다. 월리스는 이 공동체와 잡지, 그리고 단체를 토대로, 복음주의적 영성, 공동체적 친교, 그리고 기독교적 사회책임을 결합한 복음주의적 신앙/신학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월리스는 <회심>(The Call to The Convent) 외에,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 2008), <하나님의 정치>(God’s Politics, 2005), <신앙의 능력>(Faith Works, 2000), <누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가?>(Who Speaks for God?, 1997), <정치의 영혼>(The Soul of Politics, 1995),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Revive Us Again, 1983) 등의 책들을 저술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빈번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여러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교회와 정계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공회 목사인 조이 월리스(Joy Carroll Wallis)와 결혼하여 두 아들 루크(Luke)와 잭(Jack)을 두었으며, 위

4) 짐 월리스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는 Jim Wallis, *Revive Us Again: A Sojourner’s Story*(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Randall Balmer, “Jim Wallis,” in *Twentieth-Century Shapers of American Popular Religion*. Ed. Charles H. Lippy(New York: Greenwood Press, 1989): 431-36; 양희송, “미국 정치가 주목하는 복음주의자, <소저너스>의 짐 월리스,” <복음과 상황>(2007년 1월 12일)등을 참고하시오.

싱턴 D.C.에 소재한 소저너스 공동체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2) 복음주의 좌파로서 짐 윌리스

짐 윌리스의 신학적 혹은 신앙적 정체성을 규정짓는 학계의 분류는 다양하다. “진보적 복음주의자,”(progressive evangelical), “자유주의적 복음주의자,”(liberal evangelical), 혹은 “복음주의 좌파”(evangelical left), 혹은 “젊은 복음주의자(Young evangelcal) 등이 대표적 명칭이다.⁵⁾ 그렇다면 짐 윌리스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저서들 곳곳에서 자신을 “시대를 잘못 타고난 19세기 복음주의자”라고 지칭한다. 개인적 신앙과 사회적 개혁의 통합을 지향했던 19세기의 제2차 대각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⁶⁾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수적 급진주의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보수적”이란 말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통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그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급진주의”란 단어 속에, 타협을 불허하고, 본질을 저돌적으로 추구하며 관철시키려는 그의 단호한 기백이 서려 있다. 이처럼 “보수적 복음주의” 혹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에 상반되는 표현으로서, 자신을 “보수적 급진주의” 혹은 “19세기형 복음주의”로 정의하는 윌리스의 의지는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들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과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윌리스는 복음주의자로서 “회심”과 “부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간직하고 있다. 그가 1981년에 출판했던 책의 제목이 <회심>이었고, 2008년에 나온 신간은<대각성 운동>이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처럼, 윌리스도 복음주의의 핵심적 특징을 회심으로 이해하고 있으며,⁷⁾ 오늘날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단호히 돌아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뿐만 아니라, 윌리스는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운동도 개인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런 변화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어쩌면 우리는 일종의 새로운 신앙 “부흥”에 도달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부흥은 당파정치를 초월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구체적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해결의 문을 열 것이다.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강력한 신앙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 운동은

5) John C. Green, “Seeking a Place: Evangelical Protestants and Public Engage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in *Toward An Evangelical Public Policy*. Ed. Ronald J. Sider and Diane Knippers(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5),30.또한 http://en.wikipedia.org/wiki/Evangelical_left를 참조하시오.

6) 짐 윌리스가 자신의 모델로 설정하고 있는 19세기 복음주의에 대한 탁월한 연구서로는 도널드 데이튼, <다시 보는 복음주의 유산> 배덕만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3)이 있다.

7) 복음주의 역사가인 베빙톤은 복음주의의 특징을 “회심주의, 행동주의, 십자가주의” 등으로 규정한다.

8) 윌리스는 회심의 현대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다. “오늘날 교회는 회심을 강조하지만, 그 회심의 목적을 망각한 사람들과 기독교의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지만 회심의 필요성을 망각한 사람들 사이에 분열되어 있다. 오늘날 회심자들은 역사에 대한 눈을 떠야 하며, 오늘날의 활동가들은 그들의 영혼이 회심하도록 해야 한다.” Jim Wallis, *The Call to Conversion: Why Faith Is Always Personal but Never Private*(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81), 9.

개인적 회심과 사회적 정의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것이다. 사회운동을 위해서 개인적 변화가 꼭 필요하며, 사회운동은 정치의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⁹⁾

하지만 복음주의자로서 윌리스의 생각과 행동은 전통적 유형의 보수적 복음주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는 보수적 복음주의자로부터 “진보적” 혹은 “자유주의적”이란 수식어의 비판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고 그를 일방적으로 자유주의자나 진보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 이유는 윌리스의 일차적 관심사가 개인윤리에 집착해서 사회윤리의 가치를 간과하는 종교적 우파의 한계와 사회윤리와 도덕적 가치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는 세속적 좌파의 오류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1994년에 출판한 책, <정치의 영혼>(The Soul of Politics)의 부제를 “종교적 우파와 세속적 좌파를 넘어서”라고 붙이기도 했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이 양 극단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이렇게 서술했다.

자유주의는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진지한 운동의 토대가 되는 도덕적 가치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변화 간의 중요한 고리가 좌파에게는 결여되어 있다. 반면, 보수주의는 지금도 구조적 부정의와 사회적 억압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의 사악한 영향들을 무시하면서, 개인의 자기향상과 가족가치로의 회귀를 부르짖는 것은 그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¹⁰⁾

이처럼 윌리스는 종교적 우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성애와 낙태 문제를 둘러싼 가족의 가치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들만큼, 아니 이런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성서적 명령이 빈곤, 인종, 성, 전쟁, 그리고 환경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윌리스는 복음주의의 전통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종교적 우파와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¹¹⁾ 즉, 그는 개인의 영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정의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꿈꾸는 이상적 그리스도인은 “빌리 그래함”과 “마틴 루터 킹 2세”를 합성한 모습이다.¹²⁾ 이런 면에서 그를 복음주의의 좌파, 혹은 진보적 복음주의자로 명명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¹³⁾

9) Jim Wallis, *The Great Awakening: Reviving Faith & Politics in a Post-Religious Right America*(New York: HarperOne, 2008), 13. 종교적 우파의 대표적인 제리 폴릭은 윌리스를 “히틀러와 같은 존재”라고 비난했다.

10) Jim Wallis, *The Soul of Politics: Beyond “Religious Right” and “Secular Left.”*(San Diego: A Harvest Book, 1994), xiv.

11) 미국 종교적 우파에 대해서, 배덕만 <미국 기독교 우파의 정치활동> (서울: 넷북스, 2007)을 참조하시오. 반면 종교적 우파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서로는 Randall Balmer가 있다.

12) Jim Wallis, *The Great Awakening*, 308.

13) 200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후, 윌리스는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세계 불평등, 희망은 없는가?’ 부문의 연설에서 성경의 예언자들은 불평등이 (오늘날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에 주저 없이 바로 일어났음을 설파했다. 그리고 ‘미국 정치에서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또 다른 부문에 참석하여 연설했는데, 나의 연설을 들은 많은 유럽인들이 기독교 우파만이 미국의 유일한 기독교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짐 윌리스, “다보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복음과 상황> (2007년 8월 20일)

3) “하나님의 정치”를 꿈꾸는 짐 월리스

월리스는 보수적 신앙과 보수적 정치의 획일적 통합을 지향하는 종교적 우파의 신정정치에 강력히 반대한다. 동시에 건강한 정치를 위하여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 자체를 거부하는 세속적 좌파의 배타적 태도도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런 양 극단에 대한 월리스의 대안이 소위 “하나님의 정치”이다. 하나님 정치의 구현을 위해, 월리스는 다음과 같은 화두를 독자들에게 던진다.

첫째, “하나님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이것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신학을 동일시해 온, 공화당과 민주당의 “잘못된 신학”(bad theology)을 비판하는 것이다. 특별히 종교적 우파의 경우, 자신들의 입장을 공화당의 이념과 무비판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미국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대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기능을 해 왔다. 따라서 월리스는 “종교의 최대 공헌은 이념적으로 예측가능하거나 당파적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 모두를 비판할 수 있는 도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¹⁴⁾

둘째, “인격적 신앙과 정치적 희망을 결합하라.” 월리스는 일차적으로 종교적 우파의 사유화된 신앙, 즉 신앙의 사회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을 사적 영역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동시에 도덕적 가치와 정치 간의 운명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를 상업주의와 물질주의로 오염시킨 세속적 정치가들도 맹렬히 공격한다. 이처럼 왜곡된 미국 정치판의 비판적 현실 앞에서 월리스는 신앙과 정치를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즉 신앙과 정치에 대한 진보적이고 예언적인 비전을 제창한다. 이권다툼과 정치투쟁에 집착하여 방향감을 상실한 미국 정치에 복음주의자들의 개인적 신앙에 근거한 도덕적 가치를 예언자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혼돈 속에 질서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월리스의 생각이다.¹⁵⁾

셋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다. 그러나 월리스는 이 링컨의 말을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특정한 정치이념을 신성시하려는 종교적 우파와 부시 정권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월리스는 현재 미국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는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비판한다. 이런 아전인수격의 태도가 모든 관계를 “아군과 적군” 혹은 “나와 그것”의 흑백논리적 혹은 비인격적 관계로 변질시키고,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독선적 신앙이 가세할 때, 그것은 파괴적 신정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월리스는 경고한다. 이런 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정치는 링컨의 충고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단호하게 선택하는 것이다.¹⁶⁾

<http://www.news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7>을 참조하십시오.

14) Jim Wallis, *God's Politics*, xxiii.

15) Ibid., 35. 심지어 월리스는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20세기 미국 복음주의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다.”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라.” 윌리스는 여론의 향방을 쫓아다니는 정치가들의 습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정치가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끊임 없이 자기변신을 감행하는 카멜레온 족속이다. 그 동안의 많은 신자들이 직접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 신앙의 왜곡과 정치의 혼탁만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윌리스는 신자들이 직접 정치판을 주도하겠다고 현장에 뛰어드는 대신, 유권자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움직임으로써, 전문적 정치가들이 그 여론의 향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윌리스는 마틴 루터 킹을 구체적 예로 제시한다. 그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흑인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 냈으로써, 백악관의 주인들이 결국 국민의 뜻에 복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윌리스는 신앙인들이 정치적 중립과 도덕적 우월성을 무기로, 미국 정계의 흐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⁷⁾

III. 짐 윌리스의 중심 사상

1) 빈곤문제

빈곤문제는 윌리스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그가 진보적 학생운동권에서 복음주의자로 회심하게 된 배경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심판기사가 있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곧 예수님에 대한 배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워싱턴 D.C.의 빈민촌에서 “소저너스” 공동체를 시작한 것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이런 그의 개인적 관심은 빈곤에 대한 성서적 강조와 빈곤으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그가 직접 목격하면서 체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먼저 윌리스는 성경에서 빈곤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인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과 부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관한 수 천 개의 절들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것이 구약성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였음을 깨달았다.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고, 또한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6절당 1절이 가난한 자들이나 돈(복음서는 그것을 맘몬으로 부른다)에 관한 것이다. 공관복음에서는 10절당 한 절이,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7절당 한절이 그런 주제에 관한 것이다.¹⁸⁾

16) Jim Wallis, “새로 발표된 복음주의 성명서,” <복음과 상황> (2008년 7월 18일).

17) Jim Wallis, *God's Politics*, 5. 박지호, “정치와 종교가 제대로 입 맞추려면,” <복음과 상황>(2007년 10월 15일)을 참조하십시오.

18) Jim Wallis, *The Great Awakening*, 212.

빈곤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은 빈곤에 의해 초래된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현실감을 띠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빈곤의 현실에 대한 윌리스의 글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을 대변한다.

다음의 통계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미국의 아동들 6명당 한 명 꼴로 빈곤에 처해 있고(미국에서 1천 3백만 명!), 빈곤 한계선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무려 3천 6백만 명(이 숫자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미국의 어느 주에 사는 사람들의 수보다 많은 것이다)이고, 4백만의 가정들이 식사를 거를 정도로 굶주리고 있으며(이 숫자보다 세배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제대로 음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4천 5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없이 살고 있고, 그 중에는 8백 4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천 4백만 가정들이 주택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노숙자들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특별히 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다.¹⁹⁾

빈곤문제에 대한 이런 성서적, 현실적 인식에 근거해서, 윌리스는 미국의 정치를 맹렬하게 비판한다. 빈곤이 범람하고 있을 때, 정치가들은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대신, 자신들의 선거활동을 위해 빈곤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윌리스는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권력 투쟁의 제단 위에서 미국인들이 이념적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통탄한다.²⁰⁾ 그러면서 윌리스는 보수주의자들을 향해, 그들이 빈곤의 원인을 가정의 붕괴로 파악하는 것은 빈곤의 여러 이유들 중 하나를 전체와 동일시키는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하고, 이 문제를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윌리스는 빈곤퇴치의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은행, 정부, 그리고 신앙단체들이 체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의 사회복지제도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금전적으로 돕는 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빈곤의 정도를 축소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앙단체들도 단지 빈자들을 위한 개별적 봉사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개선을 위한 여론형성에 관여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부자들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는 세금 혜택규정, 즉, 부익부빈익빈 구조를 고착시키는 왜곡된 세금정책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윌리스는 빈자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나친 군사비와 전쟁비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약한 재정구조를 개선해서,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윌리스는 빈곤문제를 단지 경제나 정치문제로 한정하

19) Ibid., 223.

20) Ibid., 224.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신학적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다 심오하고 근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 경제논리와 정치투쟁의 희생물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정치 보다 높은 가치와 의미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주의자 윌리스의 기본적 확신인 것이다.

2) 인종문제

플리머스 형제단이란 보수적 복음주의 출신인 짐 윌리스가 사회개혁운동가로 전향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가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미국의 인종차별 문화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자기보다 명석한 흑인 친구가 글을 쓸 줄 모른다는 사실에 윌리스는 큰 충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백인인 자신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길가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쳤으나, 그가 만난 흑인 친구의 어머니는 흑인 아들에게 길을 가다 경찰을 만나거든 몸을 숨기라고 교육했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몸으로 겪으면서, 윌리스는 흑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을 위한 투사가 되었다. 그가 가난한 흑인들이 밀집해 있는 워싱턴 D.C. 14번가에서 “소저너스” 공동체를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가 빈곤문제에 눈을 뜨게 된 것도 역시 미국 흑인들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였다. 따라서 윌리스의 빈곤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은 미국의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윌리스는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15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1960년대의 민권운동을 통해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믿는다. 그는 일차적으로 인종문제를 “미국의 원죄”(America’s Original Sin)로 규정한다. 그는 “미국이 타 인종에 대한 종족말살과 또 다른 인종의 노예화에 근거해서 건설된 백인사회”라고 정의한다.²²⁾ 미국사회의 이 같은 태생적 한계는 이후 미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내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백인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거절해 왔다. 그나마 그 동안 성취된 최소한의 발전도 흑인들의 영웅적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에 대해 윌리스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적고 있다.

미국의 원죄는 우리 나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미국에서 노예제도와 그 이후에 발생한 흑인에 대한 차별은 대단히 심각한 불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적 회개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 엄청난 죄에 대해 “사과하는 것”도 대단히 심각한 논쟁을 불러 왔을 뿐이다.²³⁾

21) 빈곤에 대한 윌리스의 생각에 대해서는 *God’s Politics*, 209-40, *The Call to Conversion*, 35-78; *The Soul of Politics*, 59-85를 참조하십시오.

22) Jim Wallis, *God’s Politics*, 308.

23) Ibid.

결국, 이렇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인종차별의 현실은 대다수 흑인들의 삶을 처참한 비극 속으로 추락시켰다. 윌리스는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순진한 흑인 청년들이 미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인종차별 전통의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흑인들이 거주하는 빈민지역에서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생계를 위해 마약거래에 손을 대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연들을 윌리스는 비통한 심정으로 기록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업자들과 시당국의 결탁 속에 가난한 흑인들이 주거지를 박탈당하고, 도시의 유목민 혹은 노숙자로 전락하는 현실 앞에서 윌리스는 고통스럽게 절규한다.²⁴⁾

이처럼 인종문제에 대한 윌리스의 비판적 문제인식은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온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인종차별로 인해 미국 사회가 분열되고, 미국인들의 영혼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이 분열을 당연시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윌리스는 비판한다.

오늘날 공화당원들은 인종분열의 전략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지만 존슨과 케네디의 당인 민주당은 오랫동안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당연시 해왔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흑인들에게는 정치적 선택권이 거의 없다. 한 정당은 백인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로 흑인들을 이용하고, 다른 당은 그들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제안을 내놓지 않은 채, 그들의 지원만을 요구한다.²⁵⁾

이처럼 복잡하고 난해한 미국의 인종문제는 최근에 미국의 유색인종들이 다양해지고, 또 그들 간에 이권다툼이 벌어지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 소수인종의 주류는 흑인이 아니라, 히스패닉 계열이며, 아시아인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흑인들과 히스패닉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랫동안 흑인들이 독점해 왔던 정부의 다양한 혜택들이 최근에는 히스패닉들에게 돌아가면서, 이들을 향한 흑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이들의 경쟁 속에 뛰어난 아시아 이민자들이 이들에 의해 더 혹독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 LA 폭동 당시 한국인들이 흑인들에 의해 공격을 당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중산층으로 신분이 상승한 소수의 흑인들과 여전히 가난한 다수의 흑인들 사이에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윌리스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인종차별 혹은 인종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신학적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종차별 문화를 “미국의 원죄”로 규정한 것 자체가 이 문

24) 미국 흑인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는 Jim Wallis, *The Soul of Politics*, 87-113에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25) Jim Wallis, *God's Politics*, 314.

제를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그의 근본적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종차별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의 핵심을 부정한다. 그것은 서로 분리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교회의 목적을 부정한다.”²⁶⁾ 동시에 그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회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의 각성에서 기원한다. 왜냐하면 현재 이 문제는 철저하게 영적이기 때문이다.”²⁷⁾ 하지만 교회가 이 일에 관여해야 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이에 대해 윌리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적 가치”의 문제에 관해서, 아마도 소수인종과 백인공동체 모두에 속한 종교 공동체들이 궁극적으로 인종의 정의와 화해를 성취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회중들이 아직도 대부분의 공동체 내에, 특히 가난한 공동체 내에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들이며, 한 사회가 가장 절박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

결론적으로, 윌리스는 인종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백인과 흑인 당사자들이 정직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간의 화해를 위해 양자가 용기 있게 결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백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지만, 흑인들 또한 그들만의 고유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양자가 만나서 정직하게 현실을 대면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윌리스는 제안한다.²⁹⁾

3) 전쟁과 평화의 문제

1960년대에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윌리스는 꾸준히 평화운동에 관여해 왔다. 2001년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허물어지고, 이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향한 미국의 보복전쟁이 시작되자, 윌리스는 전쟁과 평화 문제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윌리스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신학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성서적, 신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신앙공동체가 이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⁰⁾

먼저, 윌리스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존의 기독교적 입장을 “평화주의, 정당전쟁, 그리고 십자군”으로 구분하고,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한 입장을 평화주의와 정당전쟁으로 제

26) Jim Wallis, *The Soul of Politics*, 109.

27) Ibid.

28) Jim Wallis, *God's Politics*, 318.

29) Ibid., 320.

30) Jim Wallis, *The Call to Conversion*, 86.

한한다. 그러면서,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 사이의 선택 대신, 양자를 넘어서는 제4의 길로, “정당한 평화정착”(just peacemaking)을 제시한다. 그는 이 제4의 길이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동시에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의 장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세상의 폭력을 제한하며 억제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거나 동의해야만 한다. 평화주의 전통이든 혹은 정당전쟁 전통이든, 전쟁에 대해 기독교가 반대한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한다. 그곳에서는 평화와 정의가 우세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꿈꾸고, 미래의 약속 안에서 현재를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강제적으로 이 땅에 끌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도래한다. 전사인 왕이 아니라 고통 받는 종을 통해 도래하는 것이다.³¹⁾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런 원론적 이해를 배경으로, 윌리스는 테러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한다. 윌리스는 테러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테러문제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주장하면서, 테러를 악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빈라덴을 정의와 평화의 투사로 간주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냉혹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테러문제를 해결하는 과도한 폭력적 대응에 대해서도 똑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테러리스트를 무력으로 응징하려는 것은 문제를 본질적,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일종의 대중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윌리스의 판단이다. 테러를 예방하는 근본적 해법은 테러를 생존 및 저항의 수단으로 선택하도록 만든 근원적 원인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상만 공격하지 말고, 테러리즘의 근본적 원인들을 공격하라. 빈곤이 테러리즘의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빈곤과 절망은 테러리즘을 양산하는 주된 미끼들이다. 우리는 테러리즘이라는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부정의의 습지를 제거해야 한다. 정말로 정의가 평화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다. 공동의 안전이 없다면 정녕 안전은 없는 것이다.³²⁾

이런 방식으로 테러를 이해하면서, 윌리스는 이라크전쟁에 대해 미국 정부, 특히 부시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한다. 윌리스가 부시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먼저, 미국 정부가 이라크전쟁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략했지만, 정작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바꾸며 전쟁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선으로, 그리고 이라크를 악으로 규정하는 그릇된 신학에 근거해서, 성경과 상관 없는 제국주의적 전쟁을 성전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 정부를 향해, 윌리스

31) Ibid.

32) Jim Wallis, *God's Politics*, 106.

는 “예수님이 언제 전쟁을 찬성했는가?”라고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셋째, 미국 정부가 UN과 여러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시 정부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전쟁을 치르며, 종교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의 충심 어린 충고나 조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넷째, 부당한 전쟁을 통해, 특정 기업들에게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베풀고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은 대폭 삭감하며, 군사비와 전쟁수행비는 과도하게 지출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³³⁾

IV. 글을 마치며: 짐 월리스와 한국교회

이상에서 신앙의 사유화를 주도하는 종교적 우파에 대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동시에 정교분리의 편견 속에서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해 온 세속적 좌파에 대한 중요한 교정세력으로 부상한 짐 월리스의 삶과 생각, 그리고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21세기에 한국에서 왜 복음주의자들은 짐 월리스에게 주목해야 하는지, 짐 월리스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으므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짐 월리스의 독특한 생각과 활동을 통해, 복음주의의 사회참여가 기존의 종교적 우파의 전유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복음주의는 근본주의 혹은 보수주의와 동의어로 혼용되어왔다. 그 결과, 복음주의는 교리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시련을 거치면서 한국기독교는, 특별히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은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보수세력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 해왔다. 정치적으로는 철저한 반공세력으로,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철저한 지지세력으로, 그리고 외교 및 군사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친미세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왔다. 특별히, 미국에서 부시정권의 등장과 이를 지지하는 종교적 우파의 발흥과 보조를 맞추어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 즉 복음주의 교회들은 극우적 정치이념을 수호하고, 진보세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런 보수적 기독교의 행보는 지난 대선에서 “장로대통령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고, 미국의 종교적 우파의 선례를 속에서 자신의 역사적, 신학적 정당성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짐 월리스는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에게 “복음주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

33) 전쟁과 평화에 대한 월리스의 입장은, Jim Wallis, *God's Politics*, 87-208; *The Call to Conversion*, 79-110을 참조하십시오.


학적/신앙적 보수주의가 반드시 정치적 보수주의로 환원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윌리스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시대를 잘못 태어난 19세기의 복음주의자”라고 정의했다. 19세기에 제2차 대각성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는 복음전도자요 부흥사였지만 당대의 가장 민감한 사회문제였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20세기 초반의 대표적 근본주의자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미국의 진보적 정치를 주도했던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다. 또한 18세기 영국의 노예제도폐지를 성취했던 저명한 정치가 윌리엄 월버포스는 존 웨슬리의 영향을 깊이 받은 복음주의자였다. 이런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에 짐 윌리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은 그 어떤 유형의 기독교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정의와 변혁의 주체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주의적 신앙과 진보적 정치활동을 창조적으로 결합한 짐 윌리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추구하는 짐 윌리스를 통해, 특정이념이나 정당을 지지하며, 자신들이 직접 정치적 싸움판에 뛰어드는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에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는 우파 정권과 자신들의 운명을 동일시하며, 특정 이념의 맹목적 지지세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교회가 다양한 이유와 명분 하에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민족의 깊은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기보다, 특정이념 혹은 특정 정치세력의 조직원으로 기능함으로써 국가적 분열을 주도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보수기독교의 우파적 정치세력화 현상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기 보다 오히려 한국기독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며, 선교 현장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기독사랑실천당”의 참패는 이런 현실을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짐 윌리스는 또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경종을 울려준다. 그는 “하나님이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그는 특정 정당의 후원세력으로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었던 종교적 우파의 지도자들, 특히 제리 폴웰 및 팻 로버트슨과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미국 정치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마틴 루터 킹 2세를 끊임 없이 비교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특정 이념이나 정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 보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양당 혹은 다양한 세속적 정치이념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세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정 이념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자신들의 세속적 정치이념을 뒤튼린 신학적 해석으로 정당화하는 지독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정직한 독서를 바탕으로 세속적 정치이념을 예언자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세속적, 이기적 정권다툼에 함몰되어 있는 정치인들에게 보다 높은 도덕과 정치적 이상을 제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종교인들이 직접 정권을 쟁취하려는 타락한 형태의 신정정치를 꿈꾸는 대신, 윌리스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근거로, 정치인들에

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가 보다 성숙되고 온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짐 윌리스를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끝으로, 한국 복음주의자들은 특정한 소수의 윤리적 이슈들에 집착하는 대신, 일관되고 폭넓은 기독교의 윤리적 책임을 주창하는 짐 윌리스를 통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통합한 보다 거시적이고 통전적인 윤리관을 확립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친자본주의, 친미 등의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왔다. 그러면서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비록 최근에 보수 기독교가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특정한 종교적 교리나 정치이념에 근거해서 접근함으로써 건강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는 제사 및 전통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일방적으로 고수해 왔고, 남녀평등, 양성적 병역거부, 그리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고집해 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전통적 사고와 주장을 맹목적으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윤리 면에서 음주와 흡연을 반대하고, 세속적 오락과 약물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들 배후에 존재하는 친민자본주의와 상업주의의 위협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런 문화적 흐름에 편승하여 자기세력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암암리에 이런 타락한 문화를 구조화, 제도화 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사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정치 및 경제세력들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의 기능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와 동성애 문제에 집착하는 종교적 우파를 향해, 빈곤, 성차별, 인종 차별, 전쟁과 테러리즘, 그리고 환경문제 같은 거시적 문제도 교회가 담당해야 할 성서적, 신학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짐 윌리스의 주장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윌리스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종교적 우파는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신학의 범위를 축소하고, 교회의 역할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윌리스는 “하나님의 정치”를 제안하면서, “우파와 좌파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윤리에 집착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 혹은 왜곡해 온 종교적 우파의 오류를 극복하고, 또한 사회윤리에 과도히 편향됨으로써 개인윤리의 가치와 필요성을 과소평가했던 세속적 좌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양자를 창조적으로 통합/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대안적 활동의 가능성을 자신의 저술활동과 강연, 그리고 구체적 행동을 통해 입증해 왔다. 그를 복음주의 좌파로 분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거나 편향되고 왜곡된 형태로 실행하고 있는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짐 윌리스의 담대하고 일관된 사상과 행동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짐 월리스의 “회심” 해설

미국에서 부시의 재집권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이, 종교계에서는 기독교 우파가 화려하게 등장하며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별히 미국 기독교 우파의 등장은 그들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한국 교계와 정계에서 동일한 관심의 핵이 되었다. 하지만 기독교 우파로 통치되는 보수적 복음주의의 행태가 미국 복음주의 전체의 초상은 아니다. 복잡한 인종의 스펙트럼 만큼 다양한 종교적 그룹들이 공존하는 미국에서, 복음주의 또한 다양한 허부 그룹들이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위 복음주의 좌파로 분류되는 그룹들이다. 이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짐 월리스(Jim Wallis)다. 그는 <소저너스>(Sojourners)지의 발행인이자, ‘소저너스 공동체’(Sojourners Fellowship)의 대표로서, 지난 30여 년간 복음주의의 비판적 지성으로 활약해 왔다. 지난 2005년에 그는 25년 전에 출판했던 <회심>(Call to Conversion)을 개정하여 다시 출판했다. 9.11 테러와 그 이후에 전개된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를 상대로 한 무자비한 보복 전쟁을 목격하면서, 월리스는 이 책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1. 짐 월리스는 누구인가?

짐 월리스는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 빈곤과 전쟁 같은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표적 지성 중의 한 명이다. 1948년, 미시간 주의 한 플리머스 형제단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경건하고 보수적인 기독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러던 그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들어가서, 당대의 가장 첨예한 사회적 쟁점인 흑인들의 암담한 현실과, 이에 대한 복음주의의 기독교의 냉대와 무관심을 체험하면서, “급진적 기독교”인으로 변모하였다. 특별히 1968년, 마틴 루터 킹 2세와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이란 비보를 접하면서 정의에 대한 냉철한 의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며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극적인 신앙적 회심을 체험했다.

성서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하던 그는 1970년, 시카고에 소재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신학교에서 그는 자신과 비전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 인민연합”(People’s Christian Coalition)이란 공동체를 설립했고, 1971년에는 <포스트-아메리칸>(Post-American) 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이 공동체가 해체되자, 잡지 발행도 중단되었으나, 1975년에 월리스를 중심으로 워싱턴 D.C에서 ‘소저너스 공동체’(Sojourners Fellowship)를 재건하고, 잡지도 <소저너스>란 이름으로 다시 발행하기 시작했다. 월리스는 이 공동체와 잡지를 토대로, 복음주의적 영성, 공동체적 친교, 그리고 기독교적 사회책임을 결합한 복음주의적 신앙/신학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월리스는 <회심> 외에,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 2008), <하나님의 정치>(God’s Politics, 2005), <신앙의 능력>(Faith Works, 2000), <누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가?(Who

Speaks for God?, 1997), <정치의 영혼>(The Soul of Politics, 1995),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Revive Us Again, 1983) 등의 책들을 저술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빈번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여러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교회와 정계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공회 목사인 조이 윌리스(Joy Carroll Wallis)와 결혼하여 두 아들 루크(Luke)와 잭(Jack)을 두었으며, 워싱턴 D.C.에 소재한 소저너스 공동체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2. <회심으로의 초대>: 1981년의 초판과 2005년의 개정판

<회심으로의 초대>는 본래 1981년, 미국과 전세계의 부유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일종의 “기독교적 제자도에 대한 성명서”로 출판되었다. 윌리스는 냉전의 절정기에 “빈곤과 폭력”의 실체를 목격함과 동시에, 이런 현실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에 갇혀 침묵하는 교회의 허상을 발견하였다.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적합성을 갖고 발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복음적 유산을 현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적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그는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통전적 삶으로 회심하라고 엄중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교회가 직면한 세상은 25년 전과 여러 면에서 너무 달랐다. 무엇보다 “냉전”이라는 20세기의 “흑사병”이 종언을 고했다.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무한히 팽창하던 핵무기 경쟁은 구 소련의 붕괴로 종식되었고, 미국 중심으로 세계의 권력구조가 재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의 절정기에 출판된 <회심으로의 초대>의 여러 부분들이 시대적 적합성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교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한 채 지속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세계화라는 슬로건 하에 전개되는 미국 중심의 세계권력 구조의 재편성은, 빈곤을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대신, 빈곤의 심화와 전쟁의 영속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윌리스는 초판의 기본 구조와 문제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대적 적합성을 상실한 내용들을 현재의 긴박한 문제들로 대체하며, 2005년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초판과 개정판을 비교하며 읽는다면, 지난 25년간 세상이 얼마나 변했고, 또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가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3. <회심으로의 초대>: 중심 내용

윌리스는 1981년 판 서문에서 현대 교회를 향한 최대의 부르심은 바로 “회심”이라고 선언한다. 즉, 우리가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맘몬의 제국 한 복판에서 우리(교회)는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회심이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바로 이것을 지시하고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xxi)라고 회심의 절박성을 천명한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윌리스는 회심에 대한 기존의 편향된 이해들을 비판한다. 기존의 회심이 지나치게 영적으로 이해되어, 회심의 역사성을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회심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일부의 움직임에도 반대하여, 회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복음을 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에 대하여, 그들에 의해 회심의 사회적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비판한다. 결국 윌리스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은 개인적 자아와 문화적 맹목 모두를 넘어서는 것”(32)이라고 지적하며, 회심의 통전적 의미를 회복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회심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윌리스는 회심의 범주 안에 현재의 가장 난해한 문제들인 빈곤과 폭력의 문제까지 포함시킨다. 기본적으로 윌리스는 이 같은 문제들을 정치·사회적 측면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향에 반대하며, 이것들을 신학적 차원에서 수용하여, 고독한 지적 싸움을 벌인다. 예를 들어, 빈곤의 문제에 대해, 윌리스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착취와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맘몬 숭배로 대체한 것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41)고 진단하며,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제도, 체제, 그리고 사회를 그것들의 희생자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72) 가능해 진다고 주장한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들을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민족적 차원에서 다루기보다, 신학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실천적 평화정착과 비폭력적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폭력의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87)고 선언한다. 결국 윌리스는 신학과 정치학의 영역을 구분하고, 교회와 세상을 대립개념으로 이해하던 기존의 복음주의적 세계관에 도전하여, 진정한 회심이야말로 개인의 영혼과 사회의 구조 약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회심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면서 사회적 논점들을 신학적으로 탐구하는 윌리스는, 예배, 찬양, 성찬 같은 교회의 다양한 전례 및 활동들도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한다. 일차적으로 윌리스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고한다. “예수님의 유산은 새로운 삶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람들”이었다고 믿으며,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공간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신자들이 치료 받고 성장하는 훈련의 장으로 이해한다. 결국, “회심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지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됨으로써 시작된다”고 윌리스는 교회와 회심의 관계를 설명한다. 교회에 대한 윌리스의 이해는, 예배에 대한 이해로 직결된다. 즉 예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존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을 확인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상들이 타파되고, 온갖 종류의 거짓 예배들의 숨겨진 정체가 폭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관행과 활동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과정이며, 동시에 현재적 경험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4. <회심으로의 초대>: 특징

윌리스는 자신의 조국인 미국을 향해 이 책을 썼다. 그러나 미국을 향한 그의 눈은 결코 곱지 않다.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로 빈곤을 구조화하고, 무력에 의존하여 세계의 권력구조를 재편하려는 현 정부를 그가 혹독히 비판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퍼센트의 사람들이 부의 86퍼센트를 통제하는 국제경제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정의하는 ‘자유세계’란 미국의 이익이 자유롭게 작동되는 곳을 말한다. 그 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게는 우호적이나 자국 백성들에게는 잔혹한 정권에 의해 통치되어 왔다”(44). 그는 이런 미국이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심에서 돌아서는 것이 국가적 치유와 회심을 향한 첫 걸음”(45)이라고 처방 한다. 이처럼 윌리스는 미국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을 동일시하거나, 미국의 이념을 성서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는 복음주의 우파의 입장과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윌리스는 복음주의자로서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이 책 곳곳에서 분명하게 노출시킨다. 빈곤과 폭력이라는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하면서도, 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원적 힘을 성령 안에서 찾고, 이 사명의 담당 주체인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먼저, 성령과 정의(justice)의 관계에 대해서, 윌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성령의 임재는 정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단지 신앙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서 말이다”(113). 또한 교회의 본질을 불의와 악에 대한 저항 공동체로 이해하면서, 이런 교회의 특성과 찬양 및 축하라는 기능 간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필연적으로 교회는 악과 불의에 대한 저항 공동체이다. 하지만 그 저항은 즐거운 찬양과 사랑스런 축하의 의식(a sense)에서 흘러나온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부름 받은 생명, 즉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주어졌고, 후에 세상을 위해 포기해야 할 생명을 축하하는, 축하의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 우리는 저항의 공동체가 된다. 하지만 그 전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후에, 우리는 찬양과 축하의 공동체인 것이다.(159)

복음주의 좌파로서 윌리스의 정체성은 그의 정치적·신학적 사고에 건강한 균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윌리스는 교회의 본질을 저항과 찬양으로 이해한다. 회심도 영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을 동시에 지적한다. 사회를 개혁하는 동력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인간의 책임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성령과 예배의 의미를 뚜렷하게 부각시킨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의 이해도 균형을 잃지 않는다. 개혁과 미래에 대한 순진한 낙관주의를 배격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우파의 시각에서 윌리스의 입장은 대단히 “급진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속적 진보주의의 눈에는 “보수주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정치적 아마추어”로 비친다.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윌리스의 정치적 관심과 복음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석을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신학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반신학적 행위라고 비판한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윌리스가 복음과 상황, 신학과 정치학의 양극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결국 그 줄 밖으로 자유롭게 뛰쳐나가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고 그의 신학적 분투를 폄하한다.

그러나 이 같은 양 진영의 혹독한 비판이야말로 윌리스의 위치와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외적 장치가 된다. 그들의 비판처럼, 윌리스는 보수와 진보, 복음과 상황, 신학과 신학함, 그리고 케리그마와 역사의 양극 사이에서 위험하고 불안한 줄타기를 해왔다. 이 줄타기 공연을 땅 위에서 편안히 구경하는 이들에게, 그의 행보는 대단히 불안하고 이슬이슬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안락한 땅을 버리고 줄을 타겠다고 “만용”을 부렸다. 때로는 그가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의 “줄타기 공연”을 외면하기도 했지만, 그는 위험하고 인기 없는 그 공연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맘몬의 포로가 되어 복음을 특정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특정 계급의 전유물로,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한 편향적 이념으로 왜곡해온 교회와 세계를 향하여, 또 현실의 안락함에 중독되어, 현실의 비극과 고통에 무감각해진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는 21세기의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고 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런 광대로 부르소서!” 광야에서 들려오는 그의 절규는 오늘도 외롭게 하늘을 울린다. 

강연 2

“회심”

출판기념 강연회

김선옥 교수

숭실대 철학과, 기윤실 삶의정치·윤리운동 본부장

평화와 정의, 그리고 회심과 하나님의 정치

짐 윌리스의 <회심: The Call to Conversion>과 나의 인연은 지난 2006년 봄에 시작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되었던 미국 개신교의 정치실천에 대한 연구를 위해 나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그곳에 나와 있는 개신교 교회 사무실들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나는 보수적 신앙을 사랑하였지만 한국의 보수적 신앙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현실에 있어서의 복음적 삶의 실천을 도외시하고 현실과 유리된 영성을 깊이 추구하고 있어 이에 큰 의문을 갖고 있었다. 영성으로부터 소외된 현실에서 비신앙적 요소, 아니 불신자들도 삼가는 비도덕적인 행태가 신앙적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실천과 영성의 괴리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더불어 그 근원에 대한 의문이 싹텄던 것이다.

이러한 괴리에 대한 고민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맥락은 1990년 이전의 한국의 정치적 배경과도 연관이 된다. 1980년에 있었던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당시 국보위가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보수적 신앙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한경직 목사님이 조찬기도회 석상에서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베푸는 모습이 전국에 TV로 중계되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전두환 후보를 옹호하는 연설을 한 시인 서정주씨는 자신이 그를 위해 찬조연설을 하기로 허락한 이유는, 그의 해맑은 눈빛에는 푸른 하늘을 머금은 듯 천진함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광주 항쟁의 현실을 이미 접해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순수 문학을 상징하는 대표적 시인 서정주의 연설에 대해 역겨움을 금할 수 없었다. 순수문학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가운데 현실의 가장 적극적인 변

호자가 되어 버렸다. 보수 신앙도 이와 다를 바 없었다.

2003년 4월에 나는 미국 뉴욕에 있는 UN 총회 건물 맞은 편에 있는 Church Center 건물을 방문하였다. 거기서 미국감리교 사무실, 복음주의 루터교 사무실, 그리고 장로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거기의 대표자들과 당시의 미국의 정치와 교회의 관계 및 신앙인들의 문제의식 등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미국 개신교 교회의 신앙과 실천>이라는 글로 남겼다. 그리고 그 후속 연구를 위해 2007년 5월에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거기서 감리교, 장로교, Churches for Middle East Peace, 그리고 Mennonite Central Committee 등의 기관을 방문하였다. 특히 MCC를 방문하였을 때 Darryl Byler가 나를 맞았다. MCC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분과의 대화를 가지고 헤어질 무렵 그는 바로 다음 날 가족과 함께 중동으로 선교를 떠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선교는 개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과의 대화, 평화를 위한 중재적 노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전 가족이 10년을 계획하여 떠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짐 윌리스와 그의 저서 <하나님의 정치>를 소개해 주었고, 아울러 <회심> 한 권을 읽어 보라고 꺼내 주었다.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이 되는 가운데 과거 아들 부시 대통령의 두 차례의 당선에 기여했던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활동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에 대한 질문은 많이 받았어도 나는 현실정치를 지속적으로 follow-up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세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행태가 갖는 모순들은 그러한 정치적 태도와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줄 것임은 분명했고, 그러한 예상은 미국의 개신교회의 정치적 실천에 대한 글들에서 지속적으로 전망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짐 윌리스의 <하나님의 정치> 서문을 보면 보다 분명한 전망을 읽을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거기서 이미 오바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 책은 2005년에 쓰였던 것이다. 얼마나 예언적인가)

미국의 기독교의 위기는 주류교단과 침례교의 신앙과 실천이 대립적으로 길항작용을 했다는 데 있다. 이것이 반드시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의 대립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짐 윌리스는 에반젤리칼의 이름으로 에큐메니칼의 주장을 수용해 내었다. 그것의 기본 원리가 바로 <회심>에서 자세히 설명이 된다. 한국의 교회 또한 회심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아래의 글은 미국 교회의 정치적 실천에 대해 정리했던 글(2005년 발표)을 추려 옮겨 놓았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회심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3. 장로교와 침례교를 중심으로 본 미국 개신교의 정치 실천의 변화

3-1 식민지 미국(1492-1789)의 개신교 특징과 정치적 연관성

가. 개신교 전통의 특징과 현황

종교를 중심으로 미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는 미국에서는 개신교가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개신교의 우세성은 기독교 개신교의 특징이 다른 종교나 종파에서도 보인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가톨릭교회는 다른 나라의 가톨릭교회에 비교하여 볼 때, 청교도 사상에서 시작되어 미국의 개신교의 증추에 흐르는 도덕주의(moralism)의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는 미국의 개신교 문화의 특징이 미국의 가톨릭교회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안식일을 금요일 일몰 시점에서 토요일 일몰 시점까지로 지키는데, 미국의 개혁 유대교(Reformed Judaism)는 일요일 예배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개신교적 영향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이민들의 유입으로 변하여, 개신교의 일반적 영향력은 감소하고 상호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둘째 특징은 미국의 개신교회는 교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교파(denomina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적이다. 유럽에서는 교구를 갖춘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갖고 발전하였고, 거기서 파생하거나 새롭게 생겨난 다양한 종파들은 분파(sect)로서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파가 동일한 위상을 가진 독립 교파로서 평등한 경쟁관계를 갖는다. 분파는 배타적 개념이며 자신만을 참된 교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교파는 포용적 개념으로 자신의 교리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다른 교파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갖는다. 미국 교파에는 거시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처럼 아주 새로운 교설을 제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대체로는 약간의 신학적 입장 차이를 통해 발전되는 정도였다. 미시적으로는 구원과 관련된 알미니안과 칼빈주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겠지만 정치 실천이나 연대 활동을 할 때는 이러한 미시적인 차이는 극복되고 거시적 동질성이 연대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모든 교파는 이들 교파가 속하는 전체교회(the church)의 일부일 뿐이라는 자의식을 갖는다. 외적 교회 형태의 다양성 내에 통일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특징은 미국 개신교에서는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다는 점이다. 원래 개신교 개혁은 교리적으로 만인사제설, 성서중심 등을 특징으로 한다. 만인사제설이란 인간이 구원을 얻을 때 특정한 사제 계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접 신과의 만날 수 있고, 따라서 사제 계급의 중보 없이 모든 신자가 곧 사제라는 주장이다. 또한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서에 있다는 것은 모든 신도가 스스로 신앙을 읽으면서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리적 주장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사제 조직에 견주어 볼

때 개별 신도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평신도들의 역할이 교회 내에서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 개신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수결을 통해 결정이 되게 되었다. 교구제가 시행되는 영국에서는 출생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속 교구가 결정이 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지만, 미국에서는 개별 성직자들이 대중을 상대로 교인을 모아야 했다. 조다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말처럼 교회를 신자들의 계약 공동체라고 규정할 때 신자 개인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로교회는 교회 내의 정치에 있어서 대의정치를 표방한다. 평신도 위에 집사, 장로 등의 선출직 대표들을 두고 가장 상부에는 장로와 목회자로 구성된 당회를 둔다.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임명하는 서리집사를 임시직으로 두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집사는 선출직으로 안수를 받아 영구직이 되고, 이들 집사 가운데 다시 선출을 통해 영구직 장로를 둔다. 교회의 목사도 일종의 장로로 간주되며, 목사는 신학 훈련을 받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각 교회의 목사초빙위원회를 통해 초빙하여 평신도들의 동의를 받아 목사로 취임하게 된다. 목사의 안수는 개별 교회들의 지역 조직인 노회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노회는 다시 총회, 대회와 같은 상부 조직을 갖는다. 노회(presbyteries), 대회(synods), 총회(general assembly) 등은 개별 교회에 대해 교회재판 등에서 권위를 갖고 결정을 내리는 등 개별 교회 상위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조직은 개혁 운동이 존 낙스(John Knox)에 의해 수행되었던 스코틀랜드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위계질서가 미국에 와서는 미국적인 평신도 중심의 정서와 어울려야 했으므로, 1758년 총회에서는 총회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그 대신 지역 노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충적 길을 모색했다. 이후 19세기와 20세기에 와서는 장로교회의 많은 노력으로 개별 교회의 모든 재산을 노회로 양도하는 제도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감리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제도를 만든 목적은 교회 재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역 평신도들의 힘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의 장로교 노회는 170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생겨났고 이후 3개의 노회가 더 생겨나 1716년에 필라델피아 대회가 생겨났다. 1729년 필라델피아 장로교 노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미국장로교회의 교리적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노회에 본질적 교리와 비본질적 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였다. 1720년대에 와서 아일랜드 이민들이 많이 유입된 뒤 장로교 세력이 증가하였고 특히 중남부 지역의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들이 장로교 세력을 형성하였다.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의 성격을 가졌다. 교회는 신도들로만 구성되며, 침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과 확증을 제시하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침례교 일부는 구원에 있어서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이었지만 대부분은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켈빈의 신앙이 담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였다. 1640년

이전의 영국에서는 침례교회가 미미했지만 크롬웰 군대의 장교 및 병사들에 의해 숫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 이전에 로드 아일랜드가 침례교의 중심지였고,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도 원래는 침례교도였다. 1707년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침례교 연합회를 결성하였고 이후 침례교회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 침례교 연합회는 장로교 노회와는 달리 교회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취지에서 그 활동이 이루어졌다. 미국 침례교회의 신조가 되는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은 장로교 신앙고백의 전범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다만 침례 관련 조항만 수정이 되었다. 존 위더스푼(John Witherspoon)은 침례교도는 유아세례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면에서는 장로교인이라고 말하였다. 장로교회에서 인정하는 유아세례를 침례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교리적인 면에서 양자는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개신교와 정치적 연관성

청교도들이 타고 온 메이플라워호가 도착한 지점이 런던 회사의 관할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영국의 모든 통제로부터 자신들은 자유롭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 청교도들은 땅에 정착하기 전 선상에서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을 맺어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적 정치체를 형성하기로 계약했다. 이것은 “미국사에서 이처럼 일찍부터, 사회는 그 구성원이 선택한 일련의 규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이념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미국인들이 만든 독립선언서 등에 담긴 미국적 정치의식의 바탕에 있는 이러한 평등주의와 계약 정신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존 위더스푼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와서 건설하게 되는 세계가 “언덕위의 도시”라고 표현하였을 때 이를 하나님과의 계약(covenant)으로 생각했다. 이는 의식적 계약을 통해서만 교회가 구성될 수 있으며,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이 중심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중심의 교회 및 사회관이 미국적 정치의식의 바탕에 놓여 있다.

제퍼슨이 주도하여 만든 제1수정헌법에 나오는 국가종교의 인정의 거부와 종교적 자유보장이 갖는 의미는 정치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 차단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마치 미국 정치 내에서는 종교가 차지할 적절한 자리가 없다는 말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정교분리 원칙의 함의는 정부는 영국에서처럼 특정 종교를 국가종교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종교 또는 교파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정헌법은 다양한 교파와 종교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강단에서는 정치적 문제들이 항상 거론되었고, 정치가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던 바, 이것이 수정헌법의 정신에 모순 되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시기 말기에는 회중교회와 장로교가 가장 큰 2개의 교파였고, 침례교와 성공

회가 그 다음이었으며, 웨이커가 5위였다. 식민지 시기 최초부터 이들 교파들은 예배 형식과 신앙고백의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청교주의(puritanism)의 신앙의 한계 내에서 공통점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청교주의는 단일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교파들뿐 아니라 에피스코팔과 웨이커교 까지도 모두 청교주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시 영국에서는 이해되었다. 청교도 신앙은 교회를 내부로부터 개혁하려는 운동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가톨릭과 영국 국교에서 보이는 성례전 중심의 예식주의를 벗어나 독자적 교회를 건설하려했던 점에서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었다. 교회 조직을 가지는 장로교와 회중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침례교와 회중교회의 조직적 차이는 미국에 건너와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1700년대에 들어와 청교주의는 점차 합리주의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교회의 기준이 점차 평신도 수준으로 설정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영국의 신학이 갖고 있는 이론적 정교성을 동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740년대의 대각성(the Great Awakening) 이후에 변화하게 된다. 대각성 운동에 대(Great)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식민지 전 지역의 신도와 성직자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운동에 대해 친구인지 적인지를 밝힐 필요가 모두에게 노출되었다. 이 시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많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교육기관이 만들어 졌는데, 특히 장로교회가 이 점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대표적인 장로교 교육기관이 뉴저지 대학이었고 이는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된다. 침례교회는 많은 순회 설교자를 통해 흑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는데, 이 시기에 다른 교파들은 흑인 노예들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흑인들은 침례교회에서 상당히 평등한 수준으로 환대를 받았다. 어떤 지역 교회에서는 백인들보다 흑인들의 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고 흑인들만의 교회가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흑인 목사가 혼합 교인의 목회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기의 기독교적 특징을 타나내는 말로 “복음주의(Evangelicalism)”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복음주의란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 말로서, 가톨릭에 대항한 개신교의 신앙의 입장의 핵심이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 “오직 성경”과 같은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예수의 동정녀탄생, 예수의 신체적 부활 등을 믿는 신앙을 지칭하기도 하고,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체험을 강조하는 체험주의적 신앙, 성서에 대한 신학적 탐구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더욱 중요시하는 입장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시기 미국의 개신교 특성을 나타내는 복음주의는 특정한 신학체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 핵심은 거듭남에 대한 감정적 체험, 하나님의 법에 대한 복종의 서약의 요구 등이었다.

다양한 교파의 존재가 곧 종교 다원주의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존 코리건(John Corrigan)과 윈스롭 허드슨(Winthrop S. Hudson)은 미국에 종교적 다원주의가 존재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한다. 처음부터 미국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다원적 교회집

단으로서 존재했을 뿐, 실제로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들 교파들은 공통적인 신앙을 대체로 갖고 있었으며, 특히 대각성 운동의 영향 하에 복음적이라는 형태의 공통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 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교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교회(the church)가 국가로서의 미국과 일치되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종교와 국가는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종교 내부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미국의 개신교 교파주의는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인들의 정치적 시민 의식에는 근본적으로 종교를 통한 국가에 대한 충성, 또는 미국이 종교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건국 초기의 신앙이 면면히 유지되고 있다.

3-2 국가 건설기(1789-1865) 미국의 개신교와 정치적 연관성

가. 장로교와 침례교 현황과 부흥운동

미국 독립전쟁은 장로교의 반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로교인들의 독립에 대한 공헌은 컸다. 다트머스 경은 “전쟁이 끝났을 때 장로교주의가 음모의 밑바닥에 있었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전쟁의 승자로서 장로교는 전쟁의 이익을 교세로서 갖게 되었다. 당시 장로교회는 신도의 수와 재정에 있어서 우세하였고, 학식 있는 신자와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1758년에 장로교는 대각성 운동으로 야기된 교파 내의 신파, 구파의 갈등이 봉합되어 국가 설립에 부응할 조직적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노회가 하나의 대회로 결집되고, 이것이 다시 하나의 전국 총회로 연결이 되어 1789년에는 제1회 전국장로교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한 것은 침례교회였다. 침례교는 미국 동부 지역, 특히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성장하여 1800년대에는 미국 최대의 교파가 되었다. 침례교의 급격한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건주의적 태도를 가진 다른 교파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종교적 입장 때문에 일부 침례교 목사들이 처벌을 받으면서 대중적인 동정과 존경을 샀다는 점, 종교적 부흥운동으로 인해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회심의 결심을 한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교회의 멤버십을 얻게 된다는 제도적 이점, 성경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표하고 최종 권위로서 성경을 믿는 태도가 가지는 종교적 호소력 등을 들 수 있다. 때때로 침례교 설교자들이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설교자들의 자질 부족이 침례교의 부흥과 직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는 하지만, 코리건과 허드슨은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침례교회에서 이 시기에 흑인 목회를 제외하고는 그리 감정적으로 치우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지식인들의 교회 참여도 활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시

기에 급속한 교회 팽창 때문에 목회자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에 대한 강조가 비교적 미비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이 점을 교회 팽창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800년을 전후하여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들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다. 예배에서 신도들은 더욱 격렬한 감정을 표현했으며,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달리고, 폴짝폴짝 뛰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침례교 및 대부분의 교파들은 대략 1만 명 정도의 교인을 더 얻었다. 그러나 이후로 장로교인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 1805년 장로교 총회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채택하고 지나친 감정주의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운동이 반지성주의적 특성을 지니기는 했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있었고, 이를 통해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갖게 되었다. 부흥운동은 종교적 체제 내부로 깊이 들어와, 부흥운동에 대한 반대는 곧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한 반대로 의식될 정도가 되었다. 장로교 내부에서도 엄격주의와 부흥주의 양자가 병존하게 되었다. 부흥주의는 한편으로는 정서적 종교체험을 엄격히 요구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소가 있었는데, 이 점은 이후 이성적으로 신앙 문제에 접근하는 유니테리아니즘과 보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엄격한 교리적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유연성을 가졌는데, 이 점은 신앙적 고백주의의 부활을 초래하였다.

1857년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또 한 차례의 부흥운동이 뉴욕과 보스톤에서 시작하여 서부와 남부로 신속히 이동하였다. 직장인들은 정오를 이용하여 교회나 극장, 강의 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정오 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이때의 부흥운동은 이전처럼 단순한 감정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찾아주기, 병든 아이를 치료해 주기, 알콜 중독자 치료하기 등의 활동도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고 참회도 열광적 형태가 아니라 차분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이러한 부흥 운동에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남성들보다 여성 참여의 수가 더 적기는 했지만 젊은 남성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 이를 회사원의 부흥운동(Businessmen's Reviva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든 교파 사람들을 포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합 부흥운동(Union Revival)이라고도 하였다. 그렇지만 동시에 각 교파의 모임은 자신의 차별화를 발견하고 차이점을 발전시켰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단체, 여성의 종교 조직, 로마 가톨릭, 유태교, 유니테리언 등의 교파적 특성이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나. 교회의 자원봉사 활동과 흑인해방 문제

이 시기의 교회의 자원봉사 활동은 교회 설립을 위한 지역선교단체 활동으로, 성경 공부와 일요일의 주일학교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활동으로, 그리고 인간애에 입각

한 활동 및 도덕적 사회적 개혁을 위한 집단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로교는 모든 계층의 교육사업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1816년에 미국성서공회, 1824년에 미국 소책자협회 등의 조직을 선도하였고, 교육국 사업으로서 주일학교를 시작하였다. 주일학교는 장로교회가 일반적으로 지지했던 의무교육의 확산에 공헌했다. 여러 교파들은 이 시기에 많은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후 개신교회는 과부들을 위한 활동, 도시로 나온 사람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 알래스카 자원보호, 에스키모인 교육, 인디언 교육,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루어진 중국소녀 매춘 반대운동 등을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교회의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교파별로 구별되어 수행되지 않고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추구되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미국소책자협회가 구성되었을 때 침례교와 장로교회, 회중교회, 화란개혁교회, 에피스코팔 등의 교파가 동일한 수로 참여하였다. 이는 소문서에 따른 기독교선교 내용에 있어서 각각의 교파의 고유성은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진리를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교파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자선과 봉사활동을 부흥운동에서 강조하면서 회심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부흥운동가들은 기독교인의 삶의 완성의 지표를 과거의 청교도적 사고방식에 준해서 생각했다. 교회의 관심은 개인의 복음화 뿐만 아니라 사회를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흑인문제에 대한 관심도 개신교 교회의 주요 관심사였다. 미국에서의 흑인교회 성립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 발생한 날은 1788년 11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으로 본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 조지 감리교회의 흑인 신도들이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았었는데, 교회의 직원들이 이들을 뒷자리로 옮겨가게 했다. 이들 가운데는 압살롬 존스(Absalom Jones)와 리처드 앨런(Richard Allen)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항의와 소란이 벌어지고, 급기야 나중에는 앨런이 구입한 철공업소에서 흑인들만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들은 1794년에 베텔 아프리카 교회라는 이름으로 헌당식을 하였고, 5년 후인 1799년에 앨런이 집사 안수를 받았다. 1803년에는 400여 명이 교인이었으며 1805년에 벽돌 교회당을 건축하였고 이때 새로운 흑인 교파 아프리카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가 시작되었다. 베텔교회 헌당 12일 전에는 성토마스 에피스코팔 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압살롬 존스가 미국내 최초의 흑인 에피스코팔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였다. 앨런은 흑인 감리교파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1816년 4월 11일에 아프리카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의 감독(bishop)이 되었다.

침례교의 경우는 1750년대부터 흑인목사가 있었다. 1750년대에 버지니아의 룬덴버그에서 윌리엄 바이어드 2세(William Byrd II)의 농장에서 최초로 흑인 침례교 회중의 모임이 있었고 1년 정도 지속이 되었다가 없어지고 1772년에 다시 생겨났다. 흑인 침례교회 설교자인 조지 릴리(George Liele)가 1770년대에 남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교회를 조직하였다. 1788년에 노예 출신인 앤드류 브라이언이 사바나의 교회를 재조직하여 제일 아프

리칸 아메리칸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의 교인이 1830년대에 이르러서는 2천명이 넘었다. 이 가운데는 노예와 자유 흑인이 함께 있었다. 1818년에 선베리 침례교연합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5개의 흑인교회와 6개의 혼합교회가 가입하였다. 선베리 침례교연합은 이후 남북전쟁 때 시온 침례교 연합(the Zion Baptist Association)을 만들어 플로리다와 남캐롤라이나 지역의 교회들을 포괄하였다. 북부에서는 1805년 뉴욕에서 최초의 흑인 침례교회인 조이스 트리트 교회가 만들어졌고 이후 여러 흑인 침례교회가 설립되었다. 프로비던스 침례교 연합과 유색인 침례교 연합과 같은 침례교회 연합체들도 1830년대에 잇달아 형성되었다.

장로교회에서는 노예제도가 도덕적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1787년에 있었던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노예제는 정죄되었다. 장로교 총회에서는 몇 년 후 약간의 타협을 한 다소 부드럽게 약화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장로교회의 일부는 미국식민지협회(American Colonization Society)를 지지하여 자유를 얻은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어 그곳을 기독교화하고 문명을 전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일부는 미국노예제반대회(American Anti-Slavery Society)를 지지하여 즉각적인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남부의 장로교인들은 다른 교단의 남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노예제가 경제적, 정치적 문제라는 이유에서 교회의 관여를 반대하였고, 따라서 전체 총회 차원에서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흑인 장로교 목사인 존 글루체스터(John Gloucester)는 1807년에 제일아프리카 장로교회를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었다. 소수인 흑인 장로교 목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교단 내에서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미국내의 노예제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였다.

흑인교회를 위한 교파를 조직하고 흑인회중을 형성하는 것은 종교운동이지만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였다. 흑인 교회는 도망 노예를 위한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1830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연례대회는 자유 흑인들의 최초의 조직적 정치회합으로 간주된다. 점차 증가하는 흑인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오하이오주정부는 흑인법(the Black Law)을 만들어 흑인은 자신이 자유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필수화하고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입증하는 징표로 500불 상당의 채권을 구매하게 하였다. 1834년 7월에 뉴욕에서는 성 필립 아프리카 에피스코팔 교회가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43년 전국흑인대회에서 장로교 설교자 가네트(Harry Highland Garnett)는 “여러분들의 모토는 저항, 저항, 저항이다”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구약성서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이후 흑인의 자결권과 시민권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3.3. 남북전쟁과 그 이후의 개신교와 정치 실천

가. 전쟁과 개신교 분열

미국의 시초부터 종교는 경쟁적인 지역적 이익들과 지방의 관심사가 갖고 있는 분

리적 영향을 극복하는 연결의 힘으로서 작용해 왔다. 대각성 운동도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묶고, 공통의 충성심을 산출하여 공통의 정서를 만들어 내고, 공통의 리더십을 향해 나아가게 함으로써 식민지들을 정서적으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 왔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nation)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건설에 대한 종교적 해석이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미국인들의 자의식이 그것이다. 남북이 긴장관계에 빠졌을 때 이러한 소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아브라함 링컨이나 많은 설교자들은 남북 전쟁이 미국 국민 전체의 죄의 산물이며, 갈등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노예제의 죄는 남측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노예제가 전쟁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며, 진정한 문제는 미국인들이 그들의 운명을 완수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 국민인지의 여부였다고 말하였다.

남북전쟁은 장로교와 침례교 등의 거대 교파들을 남북으로 분리시켰다. 장로교회는 신학과 교회내의 정치개혁, 그리고 노예제 문제에 대해 구학과와 신학과 사이의 분열이 발생했다. 구학과는 교리적으로 신학과보다 보수적이었고, 남부에서 많은 지지자가 있었던 반면, 신학과는 개혁신학을 표현하는 참신한 방법을 추구하였는데 주로 뉴욕, 중서부, 그리고 변방의 주들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남부의 많은 구학과 사람들은 노예제를 긍정적인 것으로 변호하면서 단지 노예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 제도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1837년에 있었던 총회에서 구과는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결국 분열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여기에 이어 1840년대에는 침례교와 감리교도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들 간의 재결합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리된 남측의 교파들(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the Southern Methodist Church)은 남부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성장에 힘입어 북쪽과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게 되었다. 남부의 교단들은 남부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부의 교단은 전국적인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스스로 고립되었다. 남부의 교회들은 영성 교리에 몰두하였다. 장로교 목사인 라이스(John Holt Rice)는 교회가 선한 기독교를 만드는데 주력해야하며, 그 이상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런 점에서 이들은 노예제는 묵과할 내용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남부의 교회들은 개인이 하는 카드놀이나 사교춤 등을 비판하였다. 남부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복음주의에 집착하여 감정적 설교, 정기적 부흥회, 가슴으로 느끼는 종교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성향이 남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남부의 교회들의 특징은 이러한 성향이 종교적 사유와 실천에 있어서 어떠한 근본적 변화도 겪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을 견뎌 왔다는 것에 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기독교 내에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교리적 분열이 분명하게 나

타났다. 복음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성서는 기독교신앙이 등장하는 역사적 경험의 기록이며, 신학적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신앙을 과학적으로 논증할 필요가 없으며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개신교 보수주의는 새로운 과학적 연구에 대해 교리적 입장에서 부정적 태도를 취했으며, 경건주의적 차원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찰스 호지(Charles Hodge)는 “우리는 그들과 논쟁을 위해 만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들의 반론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며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남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보수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나. 흑인교회의 발전

남북전쟁 직전의 흑인 개신교 교인의 수는 백인 교인의 수의 반도 안 되었으나, 1890년에서 1930년 사이에 흑인교회가 급성장을 하였다. 이때 흑인 인구의 11%에서 43%로 흑인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때의 교인 90%는 침례교도이거나 감리교도 이었다. 흑인교회가 성장한 이유로는, 흑인 교회가 그들만의 도덕적 기관이었다는 점, 흑인의 리더십이 교회 내에서는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흑인들에게 교회는 스스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흑인교회에서는 부흥주의적 양상이 크게 발전했고 특히 오순절파가 크게 부흥했다. 이들은 성령세례를 강조하고 방언, 병치료, 예언 등 성령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들의 체험을 강조했다. 흑인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사회개혁과 인권운동으로 이어갔다. 1890년대의 흑인 침례교회의 주요 관심사는 도시로 이주한 변방 거주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 흑인 교회가 많이 생겼다. 도시 교회는 변방의 교회보다 현식을 강조하고 감정표현에 있어서 절제적이었고, 영가 부르기가 점차로 줄어들었으며, 실천적 행위를 통한 흑인의 이해 증진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역할을 한 조직은 전국도시연맹(the National Urban League, 1910년 설립)과 유색인진보전국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1909년 설립)이었다. 또한 흑인들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흑인 학교와 신학교를 세우고 자신들의 교파를 통해 이들을 후원했다.

흑인 침례교회가 특히 전후에 급증했던 것은 침례교회의 조직이 쉬웠고 목사 개인이 독자노선을 걷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1860년대에는 남부의 각 주에 흑인침례교회연합회를 가졌고, 1886년에는 이들 연합회가 모여서 전국침례교연합을 결성하였다. 흑인교회가 존재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은 미국 사회가 분리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흑인 교회의 설교 내용을 이루었던 것은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 희년의 날이 이 세상에 곧 오리라는 약속 등이었다. 1900년대 초에는 흑인 교회의 약 70%가

침례교회였다. 흑인들이 인정을 받고 권위를 행사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내의 리더십을 위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여 분열과 재조직이 성행하였다. 1917년에 전국침례교연합은 양대 라이벌 교단인 전국침례교연합Inc.(th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Inc.)와 전미침례교연합(th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of America)으로 나뉘었고, 나중에 전국진보침례교연합(the Progressive National Baptist Convention)이 추가로 결성되었다.

3-4. 근대 미국(1918년 이후)의 개신교회와 정치 실천

가. 미국 개신교의 외적 변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개신교 현황을 보면 침례교인은 약 7백만, 장로교인은 개혁교회를 포함하여 약 2백8십만으로 보고 있다. 감리교는 7백6십만으로 수가 가장 많았고 루터교는 2백5십만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개신교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 대략 6천4백만 명에 이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각 교파들의 교세가 많이 확산되었는데, 침례교인은 약 1천4백만 명이 증가하여 2천1백만 명으로, 장로교는 약 2백만 명 정도가 늘어 4백8십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감리교인의 증가폭이 5백5십만 명 정도이고, 루터교의 경우는 약 5백5십만 명 정도였던 것을 보면 침례교인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개신교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은 셈이다.

장로교와 감리교, 루터교 등 주류 개신교는 교단의 통합을 이룩하였다. 장로교는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로, 감리교는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로, 루터교는 아주 보수적인 미주리 노회를 제외하고 미국복음주의루터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장로교는 15.4%가 감소하였고, 감리교는 14.5%가 감소, 그리고 루터교는 10%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침례교(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는 약 25%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의 기독교 인구 통계를 보여주는 『2003년도 미국 캐나다 교회 연감』에 따르면 침례교를 표방하는 교단들의 전체 인구는 3천2백2십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흑인 교단은 4개(National Baptist Convention, USA, Inc.; National Baptist Convention of America, Inc.; National Missionary Baptist Convention of America; Progressiv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Inc.)로 그 인구는 1천3백5십만 명에 달한다. 장로교회는 3백5십만 명 정도에 불과한데, 장로교회는 단일교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 교단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감리교 인구는 1천2백2십만 명 정도이며, 루터교의 경우는 진보적 교단인 미국복음주의루터교(ELCA)는 5백만여 명이고 보수적 교단인 루터교 미주리노회는 2백5십여만 명이다.(표1 참조) 침례교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류 개신교 교파들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 면에서도 이들 주요 개신교 교단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세

를 보이고 있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 교단은 이미 확보된 고정적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 면에서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표1) 개신교 주요 교단별 인구순 도표

교단명	전년대비 증감도	보고년도	회원수
Southern Baptist Convention	0.58%	2001	16,052,920
The United Methodist Church	-0.51%	2001	8,298,145
The Church of God in Christ		1991	5,499,875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0.51%	2001	5,099,877
National Baptist Convention, USA, Inc.		연대불명	5,000,000
National Baptist Convention of America, Inc.	0.00%	2000	3,500,000
Presbyterian Church (USA)	-0.84%	2001	3,455,952
Assemblies of God	1.92%	2001	2,627,029
The Lutheran Church-Missouri Synod (LCMS)	-0.55%	2001	2,540,045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99	2,500,000
National Missionary Baptist Convention of America		1992	2,500,000
Progressiv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Inc.		1995	2,500,000
Pentecostal Assemblies of the World, Inc.		1999	1,500,000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11.67%	2001	1,447,934
American Baptist Churches in the U.S.A.	0.41%	2001	1,442,824
Baptist Bible Fellowship International	0.00%	2002	1,200,000

나. 이 시기 개신교의 내부적 변화

앞에서 우리는 교파별, 그리고 교파에 소속된 교단별 신도수를 중심으로 교세를 살펴봐왔지만, 이러한 관점이 오늘의 미국의 개신교 현황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관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코리건과 허드슨은 교파 중심의 교세분류가 20세기에 들어와 개신교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소위 주류 교단 소속 교회들 가운데 있는 근본주의적 성향의 교회들의 존재는 이러한 관점에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오순절파와 같은 성령주의적 운동이 활발한 주류 교단내의 교회들의 모습도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진보주의와 근본주의 등과 같은 성격 중심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세기 중엽에 진보적(progressive) 또는 자유주의적(liberal)이라고 불리는 개신교 교파들은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세계의 개신교는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적 활동을 모색하는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를 설립하여 교회일치와 연대운동 즉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미국의 교회는 1907년에 결성되었던 기존의 교파 연합체인 미국교회연합회(the Feder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를

발전시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만들었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교파들은 이 협의회에 가입하여 사회 및 정치 등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협조적” 개신교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들의 교세는 대략 3천7백만 명에 해당했다. 이러한 운동에 “비협조적”이었던 보수적 개신교단의 교인 수는 대략 2천4백만 명 정도로, 이 가운데는 1천만 명 정도의 교세를 가지고 있었던 남침례교가 포함된다. 나아가 비협조적이었을 뿐 아니라 협조적 교회운동을 비판한 “비관적(disaffected)” 개신교는 8백5십만 명가량의 신도를 가진 근본주의파와 성령파(오순절파)였다. 이들 “비관적” 교회들은 “협조적” 및 “비협조적” 교단들의 교회 속으로 들어가 풀뿌리 신도들에게 점차 영향력을 넓혀갔다.

최근의 근본주의 세력의 놀라운 확산은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도약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일이다. 1925년의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친 교사에 대한 재판을 통해 근본주의자들은 비록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국가적 우스갯거리가 되고 말아 이후에는 여론으로부터 거의 소외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본주의는 지역 회중 가운데 뿌리를 내렸고 군소교단을 통해 영향력이 확장되었다.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의 신학교 출신 목사들이 취약 교회로 파송되면서 이들을 통해 근본주의는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근본주의는 1950년대 이후의 부흥운동을 통해 크게 발전했는데, 이 부흥운동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갈망하는 분위기에서 가족과 교회 중심의 삶에 대한 추억이 만연한 상황에서 근본주의의 후계자들이 주역이 되어 일어났다. 그리고 전국부흥사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과 청년기독교회(Youth for Christ) 등의 집단을 통해 효과적인 근본주의적 신앙의 변증술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변증술들을 통해 주요 교단 내부에 근본주의가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부흥사인 침례교 목사 빌리 그라함(Billy Graham)은 청년부흥운동과 효과적인 방송사용, 그리고 교파를 초월한 지원 운동 및 한국전쟁과 맥카시즘의 분위기의 효과적 사용을 통해 크게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시기의 근본주의 부흥운동은 새로운 복음주의를 표방하였는데, 이는 초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었으며 보수적 대중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근본주의 부흥사들은 공산주의란 사탄이므로 육체적인 방법으로는 총칼을 통한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으므로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인으로 국가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충실한 기독교인이 되라고 가르쳤다. 이들은 애국적 동기와 개인적인 영적 평안과 위로의 요구를 결합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주류 교단들은 맥카시즘적 선동에 따른 마녀사냥을 감시하고, 요인 암살, 집단에 의한 개인의 무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용한 사유 통제, 익명의 고발에 따른 개인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경고도 반복적으로 내렸다. 1953년 10월 21일에 있었던 장로교총회에서는 모든 장로교회중들에게 낭송될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여기서 공산주

의에 대한 혐오는 새로운 형태의 우상숭배이며 이는 공산주의 자체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의견의 불일치와 국가에 대한 배신이 동일한 것이 아니며,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4년에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의 흑백분리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2년 전에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종분리정책이 기독교신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남부의 백인교회들은 간단한 코멘트 외에는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특히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교(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는 침묵을 비켰으며, 다른 남부 백인 교단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류 개신교 교회들은 자발적 개인들의 결사체를 중심으로 인권운동에 개입하기도 했고, 교단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기독교교회연합회를 통한 연합운동에 열심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코리건과 허드슨은 “미국의 20세기 중반에 부흥주의와 근본주의가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분위에 전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보다 깊은 흐름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근본주의는 회개의 경험을 강조하고, 성서의 권위와 성서의 축자 영감설을 믿었으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기적들 및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점에서 과거의 근본주의와 동일하다. 과거의 근본주의와 다른 점은 부흥운동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복음은 전파하였고, 사회적으로 보다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였으며, 교회 지도자들의 수준이 향상되었고, 미국 중산층에 맞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 내었으며, 과도한 우파정치와 신앙의 내용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 등이다. 청년 대학생 운동이 무척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반전운동에 앞장섰던 밥 딜란(Bob Dylan)과 같은 대중 스타들에 대한 전도를 통해 이들의 거둬담의 체험을 소개하면서 대중적 차원에서 교세를 넓혀 갔다. 또한 라디오와 TV를 통한 복음주의적, 오순절파적 신앙의 영향력을 대중에게 확산시켰는데, 종교적 라디오 방송의 70%, 종교적 TV 프로그램의 90%가 이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한 현금 수익이 5억에서 10억불에 달했는데 이것은 10여명의 목사들의 소유가 되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활약한 목사들 가운데는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과 제리 폴웰(Jerry Falwell) 등이 있었다. 이들의 TV를 통한 부흥활동의 특징은 오순절적인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다는 점 외에도, 대부분은 종교와 분명한 연관이 없는 우파적 목표를 위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청자들이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신앙의 행태를 소파 종교(*armchair religion*)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정치적으로는 활동적이 되라고 충고했다. 전통적으로 종교적이면서 교리적으로 엄격한 성향의 신도들은 투표에 소극적인 경향이어서 일반 대중들에 비해 투표율이 훨씬 낮은 경향이 있었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복음주의 조직은 우파 보수주의자들을 의원직에 당선시키고려고 공공연히 노력하였으며, 어떤 목사는 복음과 극단주의 정치를 연결시키기도 했다. 1979

년 침례교 목사인 제리 폴웰은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낙태와 평등법, 학교에서의 공중기도, 시민권 문제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최근에는 각 지역 학교의 학부모위원회나 지역의회 선출직에도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20세기 말의 주류 개신교회에서는 평신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의 갈림이 발생한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입장 차이는, 성직자들이 자신의 교인의 정치적 대표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취지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신앙적 양심에서 활동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주류 개신교 소속의 개별 신도의 경우, 흔히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치적 보수성을 띄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교단 차원에서는 자유주의적 노선을 표방하더라도 투표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성향의 교단의 정치적 결정과 평신도의 실질적 삶과의 괴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적 개신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자신의 신도들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보수교단의 정치적 지원은 보다 분명해진다. 1980년 조사에 따르면 남침례교 목사의 29%가 공화당원이었는데 1984년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화당원이었다.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은 기독교 연합(Christian Coalition)을 만들었는데, 2002년에 이미 2백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졌고 이들은 공화당을 지원했다.

남침례교는 지역적 특성과 침례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 1940년 이후에는 주류 개신교와 점차로 비협조적 자세를 취해왔으며, 1970년까지 지속적으로 극단적인 근본주의적 노선과 오순절과 성격을 함께 취해왔다. 지금의 남침례교는 미국 내 최대 교단이 되었고,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흑인 침례교의 경우는 4개의 교단의 회원 수를 합하면 단일 교단인 남침례교의 수에 가깝게 된다. 이들은 신앙적으로는 부흥주의적이면서 자신의 인권에 민감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복음주의적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로교는 식민지 당시부터 가져 왔던 정치적 영향력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교세 또한 많이 축소되었다. 동시에 개별적으로 보수적이고 부흥주의적 성향의 교회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4. 오늘의 미국 개신교 교파와 정치 실천

위의 장에서 미국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해 온 기독교의 모습을 훑어보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의 교세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특히 장로교와 침례교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조가 무엇이며 그러한 신조가 정치 실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신앙 신조와 정치적 실천이 교파를 중심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교파 자체가 미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교파를 중심으로 미국의 기독교를 이해하려 하는 것은 당연시 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충분한 몇 가지 측면들이 있다. 18세기 초에서 시작되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타난 대각성, 부흥 운동과 그러한 경향을 이어간 신앙의 형태는 반드시 교파를 중심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19세기 말부터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복음(the social gospel)의 등장에 따른 찬반의 입장의 갈림 또한 교파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20세기 중후반을 걸쳐 점차 세력을 넓혀 간 근본주의 운동이나 부흥운동, 성령운동 등의 경향성은 교파를 중심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개별 교회의 목회자와 회중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코리건과 허드슨은 교파에 따른 전통적인 분류법은 대체로 교회 정치체제 구성에 따른 차이에 기초한 것이어서 20세기에 야기된 다양한 문제들과 별 관계가 없음을 지적했다.

키미노(Richard Cimino)와 래틴(Don Lattin)은 이 시대가 아예 탈교파주의 시대(post-denominational era)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에 종교적 교파들은 지역 회중들이나 빈야드 선교회와 같은 새로운 연합체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다. 종교적 교파들의 미래에 대해 기술하는 두 단어는 축소(downsized)와 탈중심화(decentralized)이다.”라고 말한다. 소위 주류교단의 경우 1958년에는 25명에 한 명 꼴로 자기가 태어난 교파를 떠났는데, 1984년에는 세 명에 한 명꼴로 떠났다. 교파를 바꾸는 일은 개인의 차원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며, 심지어는 교회 전체가 소속 교파를 바꾸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이러한 교파 바꾸기는 주로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나 신도들에게서 나타나며, 그 이유는 교단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적 정치 성향이나 동성애 목사의 안수 등이 복음주의적 신앙생활과 교회 성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다. 키미노와 래틴은 기존 교단들의 이 같은 축소 및 탈 중심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주류 교단이 소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회중의 수가 감소하고 따라서 교회 재정도 축소되기도 했지만, 이들 주류 교단들은 이미 선대의 신앙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헌납한 기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류 교단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예컨대 1996년에 있었던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는 전국 교회의 관료적 조직을 갱신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교단 본부를 뉴욕 워싱턴 측에서 벗어나 중부나 서부로 이동함으로써 지역 회중들과 더욱 가까워지려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정치철학자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에게서 나온다. 약 100년 전에 에딘버러 대학의 기포드 강좌에서 한 강좌를 바탕으로 저술된 윌리엄 제임스의 저서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의 내용을 재검토한 최근의 기포드 강좌 내용이 *Varieties of Religion Today: William James Revisited*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이 책에서 테일러는 오늘날 미국의 체험에 바탕을 둔 개인주의적 종교 행태 및 그것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를 개인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경험으로 이해했는데 이러한 종교관은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수 세기에 걸쳐 발전해 온 경향이다. 제임스는 거듭남의 경험을 개인적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지성으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성으로 결정하지 말고 자신을 그것에 열어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한다. 신앙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용할 때 그 진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이 기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겠다는 결정은 믿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논변이 테일러가 보기에는 오늘날 미국의 종교 현상을 이해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테일러는 현대 미국 기독교의 경향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개념 장치로서 종교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의 입장을 이용하여 원-뒤르켐적 방식과 신-뒤르켐적 방식, 그리고 탈-뒤르켐적 방식을 구분한다. 신이나 영원과 같은 종교적 이념과 장치를 중심으로 정치와 국가의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를 원-뒤르켐적 방식이라고 하고, 근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등장하는 교과 중심의 종교와 국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은 신-뒤르켐적 방식으로 명명된다. 미국의 국가형성과 더불어 원-뒤르켐적 방식에서 신-뒤르켐적 방식으로의 명백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에는 달라진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는데 이를 테일러는 탈-뒤르켐적 방식이라고 명명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탈-뒤르켐적 상황에서의 종교적 삶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선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종교는 나에게 확증적이어야 하며, 내가 이해하는 나의 영적 발전 단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로 오는 종교적 통찰에 주목하지만, 보다 넓은 무엇(포괄적 “교회”나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전의 냉정하고 엄격한 신앙 태도에서 감정과 정서를 강조하는 감동 있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 태도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순전히 지적인 전통 신앙의 냉정한 태도는 종교의 핵심을 상실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처럼 감정에 주목하고 종교적 통찰을 따르되 이것이 다소 정통 교리와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영감을 저버리지는 않으려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인들의 사회적 상상력이 점점 탈-뒤르켐적 시대로 나아가면서 신앙과 국가의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고 기초가 약화된다고 테일러는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관계는 점차 이완되어 문화의 파편화 현상이 생기고, 새로운 소비자 문화를 통해 이러한 흐름은 폭발적 현상으로 될 것이라고 테일러는 예견한다.


이렇게 볼 때 미국에서는 교파 중심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교파를 중심으로 개신교와 정치 실천의 관계를 묻는 관점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테일러의 분석이 옳다면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한 교파적 시각보다는 앞으로는 보수적 복음주의와 자유적 복음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등과 같은 구분을 통해 개신교의 정치 실천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를 때의 문제는 이들 주의 중심의 관점은 정확한 인적 구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한 주의들 자체가 정확한 선을 나누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 주의들 가운데는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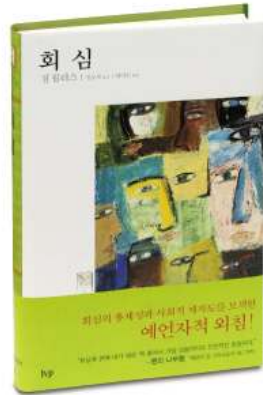
5. 맺는 말: 미국 개신교 정치 실천의 전망

조지 W. 부시가 2004년 선거에서 재선될 수 있었던 것에는 보수적 복음주의적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이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것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 가치로, 이는 낙태, 동성결혼, 줄기세포 연구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기독교 보수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 인권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한 세력은 기독교 우파라고 하기도 한다. 미국의 정치에 있어서 보수적 복음주의의 영향력이 막대해 진 것은 비단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이래로 근본주의적 기독교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대되어 왔고, 미국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이들의 영향력은 자유주의적 기독교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일찍이 압도하였다.

보수적 복음주의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오늘의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코리건과 허드슨은, 근본주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대세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전적으로 휩쓸리지 않은 보다 깊은 흐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운동과 더불어 면면히 지속되어 온 자유주의적 복음주의의 활동의 존재를 지적한다. 키미노와 래틴도 주류 개신교단이 최근의 상황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가려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는 사회정의, 인권, 노조 조직, 평화 운동 등과 같은 것으로, 주제 면에서도 동성결혼, 낙태 등과 같은 주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본주의적 기독교와 달리한다. 이들이 비록 교회 성장을 원하고 개인의 영적 성장을 원하는 회중들과 충돌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고, 지역 회중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아직은 열세이며 재정적 면에서도 근본주의 운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고려할 때 이들의 노력이 어떠한 미래를 보장할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2003년 4월에 뉴욕 시에 있는 주류 개신교 교단이 국제정치적 개입을 위해 만든 사무실들을 방문하면

서 이들 활동가들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논문에서 필자는, 당시 부시 대통령이 감리교도이면서도 감리교 감독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손을 잡고 활동하는 모습에 따른 낙담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해 온 진보적 개신교 교회의 정치 활동이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 의해 위축되거나 중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늘날 비영리단체의 운동은 자율적인 인간의 정치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음을] ... 고려할 때, ... [진보적 개신교회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적 동력의 흡수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개혁적 활동상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라고 쓰면서 희망 섞인 전망을 해 보았다.

미국의 개신교의 정치 실천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는가가 아니다. 어떤 전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철학적 분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찰스 테일러에게 눈을 돌릴 수 있다. 테일러는 앞서 언급한 책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 이해가 일면적임을 지적한다. 제임스는 개인이 교회나 성례전적 행위를 통해, 즉 집단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 신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테일러는 비판한다. 또한 모든 종교적 경험도 언어로 표현되는데, 이 언어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습득되고 전승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제임스의 개인주의적 종교 이해의 한계는 명백해진다고 지적한다.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새로운 종교의 등장은 그 자체의 한계를 지닐 수 있고, 특히 공동체성과 이와 관련되어서만 개인은 보다 깊은 가치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 하는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감정적 고양으로만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 이러한 경험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사람들은 발견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투쟁 속에서 발전해 왔고, 획일화와 일치의 강요에는 위선과 무능, 반감이 그 대가로 지불되어 왔다. 개인의 다양성의 확보와 이의 발현을 위한 공적 공간의 확보를 위해 싸워온 근대의 정치적 전통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인간의 실존의 조건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 요소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미국의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 개신교의 독선적 정치 실천의 한계는 곧 내부에서부터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짐 엘리스의 “회심”
출판기념 강연회

Ivp www.ivp.co.kr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18 / 전화_02-3337-2257 이메일_ivp@ivp.co.kr



www.trusti.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 전화_02-794-6200 이메일_cemk@hanmail.net